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종전, RISK-ON..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 미국 증시 상승: 다우 +0.92%, 나스닥 +3.07%
-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서명..WTI 5% ↓
- 엔비디아, 회사채 발행으로 250억 달러 조달

Summary

미국증시 상승: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

6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14일 이미 전자 서명까지 완료했다는 소식에 리스크-온(위험 선호) 분위기가 확산되며 일제히 상승.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92% 상승한 51,671.03에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P500지수는 1.65% 상승한 7,544.29에 거래를 마감. 나스닥 지수는 3.07% 상승한 26,683.94에 마감. 나스닥100 지수도 3.06% 상승. 다만 국채 금리 하락 폭은 FOMC를 앞둔 경계감과 엔비디아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의 이슈를 소화하며 제한적이었으며 이 영향으로 중소형주 오름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72% 상승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8.37% 하락한 16.20에 마감.

(다우 +0.92%, 나스닥 +3.07%, S&P500 +1.65%, 러셀2000 +0.72%)

미국-이란 종전 MOU 체결

중재국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으며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진행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서명했다고 밝힘. 이 전자 서명에는 미국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이란측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번 서명에 참여했으며 이와 별도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참석하는 공식 서명 행사가 열릴 예정.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졌지만 미 고위 당국자는 24~48시간 내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힘.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서명식 이후 합의문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힘.

호르무즈, 동결자금, 레바논

MOU 타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여전히 양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함.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60일간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길 원한다고 밝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영구 면제된

다고 밝힌 바 있음. 다만 이란은 60일간의 협상 이후엔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의 수수료를 걷겠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함.

또 미국은 MOU 서명의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 완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없애거나 검증 체제 허용에 나서는 등의 상황에서만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힘. 다만 “그들이 약속 이행의 의지가 있다는 작은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도 몇몇 작은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김.

또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는 MOU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함.

일단 MOU에 양측이 서명했고 곧 공식 서명식도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 다만 위에서 언급한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와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모두 향후 갈등이 재개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MOU 이행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관련 이슈의 향방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엔비디아, 대규모 회사채 발행

엔비디아가 대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공시함. 엔비디아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등급 회사채 발행을 보고했으며 최초 200억 달러 발행을 계획했으나 850억 달러 규모의 수요가 몰리며 발행 규모를 수정해 250억 달러로 확정지었음. 엔비디아는 만기 2년부터 30년까지 7개 트랜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번 회사채 발행은 지난 2021년 6월 이후 5년만에 처음.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이번 회사채 발행에 대해 AI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투자를 위한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 실제 엔비디아는 오픈 AI, 엔트로픽, xAI 등에 총 9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거나 투자 약정을 맺었으며 일부 고객사에 금융 보증 역할을 제공하는 등 핵심 투자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 다만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AI 기업 투자, 투자 받은 기업의 엔비디아 GPU 구매, 그를 통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라는 구조가 ‘순환 금융’이라고 지적. 이 같은 연결 고리는 원활히 작동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AI 시장이 둔화할 경우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존재함.

한편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와 신주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마련은 최근 지속 이어지고 있음. 막대한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AI 생태계 조성과 그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을 위한 돈줄 잡기가 앞다퉈 진행되는 상황으로 엔비디아의 순환 금융 구조에 대한 우려와 별개로 빛 내서 하는 투자의 유효기간에 대한 우려도 공존함.

앞서 메타 플랫폼스가 지난해 10월 3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지난달에는 올해 AI 자본 지출 한도를 최대 1,450억 달러로 증액하는 한편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완료. 알파벳도 지난해 11월 달러화 회사채 175억 달러와 유로화 회사채 65억 달러어치를 발행한데 이어 올해 2월 선순위 채권 발행으로 200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음. 이달 초에는 85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함. 2월, 오라클도 250억 달러 규모 회

사채를 발행했으며 3월에는 세일즈포스 역시 250억 달러 규모 자금을 채권 시장에서 조달. 여기에 지난주에는 AI 서버업체 슈 마이크로 컴퓨터의 7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계획이 알려졌으며 아마존 역시 연초 미국과 유럽에서 회사채 발행으로 약 540억 달러를 조달한데 이어 지난주에는 캐나다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약 100억 달러를 확보한다고 밝힘.

다만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움직임에 대한 현재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우호적임.

FOMC 앞두고 BOJ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가 현지시각 16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는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 이틀째인 오늘 일본은행은 현재 0.75%인 정책금리를 1%로 25bp 인상할 전망이다. 이란 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그간 경기 하방 리스크와 물가 상방 위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왔으며 최근 물가 상승 압박이 보다 거세져 이에 대한 대응을 이제는 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달러-엔 환율이 160엔대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등 엔화 약세 흐름도 이어지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보탬. 일본의 정책 금리가 1.0%로 올라가면 이는 1995년 이후 약 31년만의 최고 수준임.

특징종목

반도체주 상승, 소프트웨어주도 반등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엔비디아(+3.54%)가 250억 달러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고 보도. 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채권시장에서 2년물에서 30년물까지 총 7개 트랜치로 구성된 250억 달러 규모 'AA' 등급 투자적격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 엔비디아의 회사채 발행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발행 규모는 200억 달러였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25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됨. 순환 금융 구조에 대한 의구심, 이어지는 빅테크들의 시장 내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 이외 최근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던 구글(+2.69%), 아마존닷컴(+3.13%), 메타 플랫폼스(+4.67%), 오라클(+4.62%) 등도 상승 마감.

AMD(+6.98%)는 AI 기반 메모리 최적화 기술에 특화된 기업 MEXT 인수를 발표한 가운데 강하게 상승. 이번 인수는 AI와 데이터 집약적 워크로드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메모리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플래시 스토리지를 DRAM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MEXT의 기술은 AMD의 AI와 데이터센터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해줄 전망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0.84%)는 TD코웬이 목표주가를 기존 660달러에서 1,5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가운데 급등. TD코웬은 AI 인프라 확산 과정에서 메모리의 역할은 경기 순환적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이라며 HBM 수요 확대가 향후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특히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HBM 수요는 더욱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외에도 마블 테크놀로지(+10.43%)와 인텔(+2.64%) 등의 AI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4.06%), 퀄컴(+4.29%), 온 세미컨덕터(+7.80%), NXP 세미컨덕터(+3.62%),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3.27%), 램 리서치(+6.03%), KLA(+0.74%), 시게이트(+9.43%) 등 아날로그 반도체, 반도체 장비, 스토리지 등 전반적 반도체 업종 내 종목들이 상승. 나스닥100 신규 편입이 확정된 테라타인(+7.25%)도 강하게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5.45% 상승했고 SMH(+4.38%), SOXX(+5.45%), DRAM(+9.32%) 등 대표 반도체 ETF의 상승폭도 시장 수익률 대비 월등히 높았음.

AI 중심 성장 내러티브에 대한 부담으로 AI 반도체주와 대체로 상반된 주가 움직임일 보여 왔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 날은 동반 강세. 기업 최상위 리더십 공백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급락했던 어도비(+1.15%)가 반등했고, 오라클(+4.62%), 서비스나우(+1.96%), 데이터도그(+1.39%), 인튜이트(+1.82%) 등도 강세. 이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5.25%), 크라우드스트라이크(+1.48%), 팰로앨토 네트워크(+1.76%), 포티넷(+2.18%) 등 사이버 보안 기업들도 상승 마감.

세계 최대 고객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스포스(-0.77%)가 인공지능 기반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 기업인 핀을 3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자금 부담 등에 약세. 핀은 전화와 이메일, 왓츠앱과 슬랙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세일스포스는 현재 기업용 AI 플랫폼인 에이전트포스를 두고 있으며 이번 핀 인수를 계기로 이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 AI 열풍 속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파괴적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인수 역시 그 일환으로 읽힘.

빅테크 일제히 상승

이날 빅테크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엔비디아(+3.54%), 브로드컴(+3.1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0.84%) 등의 반도체주를 제외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2.31%)가 소프트웨어 주 전반의 반등과 함께 강하게 상승했고 애플(+1.82%) 역시 2% 가까이 상승 마감. 구글(+2.69%), 아마존닷컴(+3.13%), 테슬라(+1.16%)도 모두 상승. 지난 금요일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19.60%)가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테슬라 이외의 대안으로 부상했고 인공지능부터 우주여행까지 보다 다양한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매력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상장 이틀째까지 이어진 19%대 급등세로 2조 5천억 달러를 넘김.

한편 메타 플랫폼스(+4.77%)는 6거래일간의 하락세를 접고 7거래일만의 반등에 성공. 이날 메타는 페이스북에 새로운 AI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으며 사용자를 이를 통해 검색 옵션과 편집 기능, 콘텐츠 제작 등에서 진일보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 메타 플랫폼스는 연초 이후 10% 이상 하락해 이 기간 9% 가량 상승한 S&P500 지수에 비해 부진한 흐름.

유가 하락: 에너지주 약세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주는 약세 전환. 엑스 모빌(-4.14%), 쉘브론(-3.64%), 코노코 필립스(-4.04%), EOG 리소시스(-3.42%), 옥시덴탈 페트로리엄(-3.68%), 데번 에너지(-3.93%) 등.

다만 유가 하락을 비용 부담 완화 기대로 반영하는 항공, 크루즈, 여행 관련주는 전일에 이어 강세. 델타 에어라인스(+1.22%),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3.85%), 아메리칸 에어라인스(+3.20%),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1.34%), 카니발(+3.22%),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6.55%), 노르웨이저인 크루즈 라인 홀딩스(+3.65%), 에어비앤비(+5.05%), 익스피디아 그룹(+5.38%) 등.

이외 특징주: 금속가격 상승..관련주 강세

미국 유리 가공 기업 코닝(+4.84%)이 거대 IT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에서 전통적으로 공급사가 부담해왔던 고정비를 고객사와 나누는 형태의 위험 분산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코닝이 최근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등과 맺은 수십억 달러 규모 광섬유 공급 계약에 위험 공유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으며 이는 AI 투자 열풍이 꺾여 빅테크 기업들의 발주가 줄어들더라도 코닝이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힘. 루멘텀 홀딩스(+3.87%), 코히어런트(+7.48%) 등 이외 광섬유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

스페이스X(+19.60%) 상장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하며 전거래일 크게 하락했던 우주 관련 기업들은 반발 매수세에 반등. 로켓 랩(+6.70%), AST 스페이스모바일(+6.26%),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4.68%). 이날 키뱅크는 로켓 랩과 파이어플라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함.

금과 은, 구리 등의 금속 가격이 유가 하락과 함께 반등하며 관련주도 강세. 뉴몬트(+5.56%), 배릭 마이닝(+4.05%), 앵글로골드 아산티(+6.94%), 퍼스트 머제스틱 실버(+7.08%), 프리포트 맥모란(+2.51%) 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 금리, 단기물 중심 소폭 하락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제한적.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장 중 저점에서 낙폭을 줄였고 엔비디아가 대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으며 FOMC를 앞둔 경계감도 일부 작용해 움직임 제한함. 종전 합의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를 놓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등 향후 관련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이 역시 금리 움직임을 제한함.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1.50bp 하락한 4.0663%를 기록, 10년물 금리는 0.60bp 하락한 4.4730%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보험권에서 혼조 양상을 거듭하다 1.20bp 상승한 4.9785%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장 중 5%에 근접하기도 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움직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42%대로 전일보다 소폭 높여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41%대로,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5%대로 각각 반영함.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미만으로 집계됨.

달러 장 중 낙폭 축소..약보합

미 달러화 가치는 이란과 미국 사이 종전 합의에 약세를 보였지만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한 양측의 엇갈린 목소리에 국제유가가 낙폭을 축소하는 등 한 컨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해 약세 폭을 축소, 약보합 마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99.639로 전일 대비 0.11% 하락.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의 간접 효과가 최근 사실상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차 효과가 부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한 가운데 유로-달러 환율은 0.02% 상승, 1.1592달러를 기록. 엔화는 BOJ 통화 정책 회의를 앞두고 달러 약세에도 상대적 약세 폭을 더 확대. 달러-엔 환율은 0.01% 상승한 160.33엔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1,511.1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4.10원 상승한 1,515.20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4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2.75원 상승한 1,512.40원에 마감함.

국제유가 사흘째 하락..석달래 최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에 전자 서명했으며 오는 19일 공식 서명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급락. 3거래일째 이어진 하락세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은 4.87% 하락한 배럴당 80.75달러에 마감.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8월물은 4.41% 하락해 배럴당 83.17달러를 기록. 브렌트유와 WTI 모두 이란 전쟁 초기였던 3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 다만 종전 MOU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마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장 중 낙폭은 축소. 장 중 WTI는 배럴당 8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음.

종전 협정 이후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수 개월,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앞서 아부다비 국영 석유 공사인 술탄 알자베르 CEO는 분쟁 종료 이후 전쟁 전 물동량의 80%를 회복하는데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내년 1~2분기 이전까지는 완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즉 전쟁이 종결된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의 완전한 안정은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 다만 그럼에도 이날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 라는 강력한 헤드라인에 유가 역시 하락 압력을 강하게 받음.

국제 금가격도 이에 큰 폭 상승. 시카고 파생 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 선물 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2.7% 상승한 트로이 온스당 4,351.60달러를 기록. 이를 연속 상승세.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동반 상승. 3% 가량 상승해 온스당 70달러 초반대를 기록. 이외 백금이 3.2%, 팔라듐이 4.9% 동반 상승.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